

# 송(宋)대 민남(閩南)지역의 수출 도자기 융합현상 분석

임천, 악쿤, 정정, 박중원, 김원석\*  
공주대학교 조형디자인학부

## A Convergence Research Study of Southern Fujian Region in China during the Song Dynasty analyzing the Export of Ceramics

Chun Lim, Yue Kun, Zheng Zheng, Jungwon Park, Won-Seok Kim\*  
Division of Formative Design,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송(宋)대 민남(閩南)지역의 수출 도자기 융합현상 분석

중국 송(宋)나라 시대(960-1279) 민남(閩南)에서 제작된 도자기는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지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말리는 아프리카까지 무역을 통해 수출되었다. 중국 역사에서 3대 해양무역의 제품인 도자기를 통해 국내를 비롯한 해외와 교역하면서 왕성하게 발전하였다. 민남의 청자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에는 당시 민남 지역만의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특성들이 조화롭게 상호작용을 통해 융합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민남 도자기가 중국 도자기 역사상 유일한 융합의 가치를 세운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민남 도자기는 특수한 문화적 융합의 형태와 산업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민남에서 보이고 있는 다양한 융합현상을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에서 발생한 민남 도자기의 특성을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도자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환경적 영향에 의한 융합의 가능성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 민남, 청자, 해외 무역, 지속적인 융합, 문화적 융합

**Abstract** A Convergence Research Study of Southern Fujian Region in China during the Song Dynasty analyzing the Export of Ceramics

During the Song Dynasty in China ceramics made in the Southern Fujian (also known as Minnan) region were exported to different countries in Southeast Asia including the Philippines, Thailand and more. They were even exported to Korea, Japan and through trade they traveled as far as Africa. Ceramics was one of the three main sea route export item of China at the time and there were active commercial trading between Korea as well as other countries, enabling ceramics to develop rapidly. The harmonious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the geographical, political, cultural, economical characteristics of Southern Fujian enabled a unique type of celadon ware widely recognized to develop. Ceramics of this region is one of a kind in terms of history when we relate it to research on integrating different elements. It suggests a unique convergence of culture when we study its forms and its industrial characteristics. The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geography,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on the different phenomena found in ceramics. Different paradigms associated with changes of environment reflect on continued development in the field of ceramics.

**Key Words** : Minnan, Celadon, Foreign Trade, Convergence, Cultural Convergence

\*Corresponding Author : Won-Seok Kim(wskim@kongju.ac.kr)

Received November 14, 2019

Accepted February 20, 2019

Revised January 4, 2019

Published February 28, 2019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중국 송(宋)나라 시대(960-1279) 민남(閩南)에서 제작된 도자기는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지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무역을 통해 전해지게 되었다. 민남지역에서 생산된 도자기는 녹백유(靑白釉), 청유(靑釉), 간유(醬褐釉), 흑유(黑釉瓷), 하회(釉下彩) 등으로 이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청자의 출현을 가져오게 했다[1]. 남송(南宋)시대(1126-1279) 이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남쪽 연해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민남은 지역적 조건에 따른 항해기술과 조선업의 발달로 해외 교통과 교역이 빠르게 활성화되었다. 특히 도자기 산업으로 유명한 민남은 각종 유약(釉藥)과 새로운 기형(器形)의 발달로 중국 청자의 새로운 장을 열립과 동시에 송시대 중국 동남부의 주요 무역항으로써 중국 도자기의 세계화를 위한 시초 역할을 하였다.

민남의 도자기의 발달은 단순히 기술적 측면만이 아니다. 민남의 청자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에는 당시 민남 지역만의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특성들이 조화롭게 융합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민남 도자기가 중국 도자기 역사상 유일한 융합의 가치를 세운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는 송대의 민남지역에서 보이고 있는 다양한 융합현상을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에서 발생한 민남 도자기의 특성을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 도자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환경적 영향에 의한 융합의 가능성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중국 송대의 민남 지역에서 발생한 환경요소의 융합에 의한 도자기의 발전에 대해 연구한다. 2장에서는 민남 도자기가 발전하는데 어떠한 조건들을 갖추었는지를 지리적인 환경, 역사적 배경,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중국의 문헌자료를 통해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3장에서는 2장에서 확인된 조건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융합하고 발전시켰는지에 대해 사례 및 결과 제시를 통해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민남 도자기가 수출된 다양한 지역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민남 도자기의 특징적 요소를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 2. 민남(閩南) 도자기

### 2.1 민남 도자기 배경

송대는 민남지역 경제의 호황기였다. 당시 민남지역은 항구도시의 특성에 따른 상업의 발달과 교통 네트워크의 발전이 맞물려 생산성 향상과 해양거래의 번영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 기반한 민남지역의 발전은 지리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의 융합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끈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장에서는 민남지역의 다양한 환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민남지역은 중국 푸젠(福建)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오늘날의 샤먼(廈門), 천주(泉州), 장주(漳州) 등을 포함하고 있다[2]. 바다에 인접해 있는 민남지역은 인구는 많지만 토지가 척박해 농업에 적합한 땅이 없었다. 이런 이유에서 고대부터 민남지역은 바다와 함께 지내왔다. 배를 통해 다니고, 선상에 거주하면서, 해상판로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다.



Fig. 1. Maritime Trade Routes on the Southern Song

여진(女眞)족이 세운 금(金)이 요(遼)를 쳐서 멸망시킨 여세를 몰아, 1126년 송나라 수도 카이펑(開封)을 점령했다. 난을 피해 남쪽으로 도망한 고종(高宗, 1127-1162)이 남쪽의 임안(臨安, 지금의 항저우(杭州)로 도읍을 옮기며 남송(南宋)을 재건하였다. 이는 정치의 중심이 내륙지역에서 해안지역으로 옮겨짐을 의미하며, 또한 경제의 중심 또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되었다. 나라의 많은 부분에서 해양성이 부각되고 있었다.[3]

이러한 이유에서 민남지역의 천주항(泉州港)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리적 위치의 우월성을 지니고 있었다. 천주항은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해외 무역이 가능한 지역이기에 민남지역은 자연스럽게 통치자의 주목을 받았다. 지역의 경제가 강화되고 이에 해외무역은 집중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되어 민남지역은 해양 경제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은 민남 도자기 산업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해외무역의 특성에서 발생

하는 다양한 상호작용에 의한 융합현상은 도자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 2.2 민남 도자기

2.2.1 민남 도자기의 해외 무역의 발자취 및 규모  
 송나라 시대, 특히 남송 시기에는 민남(閩南)의 해외 무역 활동은 당나라(唐代)와 오대십국(五代十國)시기에도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송나라 시기까지 번영해왔다. 천주항(泉州港)을 기점과 끝점으로 하는 해외 무역의 발자취가 이어졌다고 당시 기록되어 있다. 특히, 서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원나라(1271-1368) 시기에 천주항은 세계 각지의 상선들은 각종 상품들을 한데 모아 큰 시장을 형성하며 번영했다.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1015년부터 1019년까지 4년간 민남지역의 천주항에 500여 명의 상인들이 고려와의 무역에 종사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모로코의 이븐 바투타(Ibn Battuta, 1304-1368)는 그의 여행기에서 당시 천주항(泉州港)의 모습을 “大帆船百艘, 幅輳其地, 至於小船, 則不計其數矣.(수백 척의 큰 범선이 하늘을 덮고 있고, 작은 범선은 부지기수다)”라고 설명했다[4].

‘瓷器之屬博易(도자기 및 기타 물건을 거래 수단으로 사용)’ 정책은 도자기 산업의 빠른 발전의 계기가 됐다. 외국과의 대량 교역에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끊임없는 현금자원의 유출이었다. 현금의 유출에 따른 국내 금융의 경색은 민남의 지역정부는 물론이고 송나라 중앙정부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10여 차례의 법령을 통해 화폐 유출을 금지하였고, 해외 무역은 금, 은, 동전 거래가 아닌 도자기를 비롯한 비단 등의 대체 수단으로 거래하도록 명하였다[5]. 이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조잡한 물품’이었던 도자기가 화폐를 대신해 거래의 지급 수단으로 변하면서, 도자기 자체의 가치가 대폭 상승한 것은 물론이고 도자기 산업의 급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6].

### 2.2.2 민남 도자기 산업의 특징

지역경제의 영향으로 민남 도자기의 발전은 질과 양적인 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도자기 산업의 양적인 면에 있어서는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탄탄히 성장했으며,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다양한 기술의 융합을 통한 혁신을 통해 민남지역만의 특징적인 도자기를 창출했다. 이러한 민남 도자기 산업의 특징을 세 가지로 구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송대 민남지역 도자기 산업의 전성기였다는 사실은 고고학적 조사와 발굴 연구를 통해 설명되고 있다. 같은 시기 중국내 다른 지역의 도자기 산업 발전에 비해 민남지역은 두드러졌으며 특히 민남지역에서 제작된 중국 도자기의 해외 진출은 당시에도 흔치 않은 현상이었다. 이는 다른 지역의 도자기 산업의 발전과 구별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1993년 중국 통계에 따르면 송(宋)·원(元)시대 천주(泉州) 지역에는 127곳 가마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 중 덕화현(德化縣) 42곳, 남안(南安) 47곳, 사문(廈門) 4곳, 장주(漳州) 11곳이 존재해 있었다[7]. 이는 민남 지역 도자기 산업의 발전 형상을 수치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다.

둘째, 민남지역 도자기 산업의 규모는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되어 있었다. 도자기 산업의 밀집도와 면적으로 따지자면, 송(宋)대 민남지역의 도자기 산업의 발전은 중국 도자기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민남지역 도자기 산업은 지역 내 도자기 산업의 발달 궤적이 정치, 문화, 경제를 포함한 시대적 배경에 의해 강력한 영향을 받는 상징적 지역이다. 도자기 산업에 관한 다양한 정책은 타 지역과는 다른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냈다. 특히, 생산규모의 확장은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양과 질을 창출해내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시기의 민남의 요장(窯廠)은 지역 전체에 걸쳐 널리 퍼져 있었다.

Table 1. Representative kiln in Minnam Province

Region	Yao Chang(窯廠)
Jinjiang(晉江)	Cizaozhen(磁灶窯)
Chinchew(泉州)	Toumon(東門窯)
Dehua(德化)	Wanpyrong(碗坪侖窯)
Xiamen(廈門)	Huxian(後溪碗窯), Tingxi(汀溪窯)
Zhangpu(漳浦)	Wanzhing(羅宛井窯), Zhushushan(竹樹山窯)
Wansiu(雲霄)	Whazheon(火田窯)
Zhaoan(詔安)	Xiuzhuanzhen(秀篆窯)

마지막으로 민남지역의 도자기 산업에서는 가마는 오랫동안 사용했었다. 송(宋)·원(元)시대 민남지역 요장(窯廠)의 기록에서 볼 때, 당시 가마의 사용 연한이 상당히 길었다. 예를 들어 덕화현의 두 요장인 완평요(碗坪侖窯), 굴두궁요(屈鬥宮窯)의 가마는 북송(960-1127)대에서 원(1271-1368)대까지 400여 년간 사용되었다[8]. 출토된 유물과 동시대의 사용되었던 도자기 등을 분석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되었음을 증명되었다. 이는 단지 가마의 지속적인 사용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도자기 산업의 재료적 특성상 한 곳에 위치하기가 어렵다고 가정할 때 이곳의 장기간 요장의 운영은 당시 민남지역의 도자기 산업의 호황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 3. 민남 도자기와 융합

#### 3.1 지속적인 융합을 통한 도자기의 발전

천주(泉州)지역의 송(宋)대 도자기 유형의 분석을 통해 민남지역의 도자기가 중국 주요 도자기 생산지의 양식을 모방해 생산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 도자기의 대표적인 생산지인 월주요(越州窯)의 청자, 용천요(龍泉窯)의 청자, 경덕진요(景德鎮窯)의 청백자, 자주요(磁州窯)의 백자 등이 민남지역 도자기의 모방 대상이었다[9]. 월주요와 용천요 청자만의 특징적인 형태와 자주요의 백토분장, 철회각화 등의 장식, 그리고 지역의 환경에 적합하게 발전된 소성기법의 융합은 민남지역 도자기만의 독특한 유형을 만들어냈고 또한 이를 전통으로 계승 발전시켰다.



Fig. 2. Yuezhoyao, Longquannyao, Cizhouyao Ceramics on the Southern Song

또한, 당시 중국내 도자기 시장에서는 수요가 많은 특정 지역의 도자기를 모방해 제작하고 이를 판매했다. 이러한 방식은 당시 도자기 생산의 새로운 체계로써 등장했다. 민남지역의 도자기 생산체계가 이러한 방식의 구현이었다. 송(宋)대 월주요(越州窯), 용천요(龍泉窯), 경덕진요(景德鎮窯), 자주요(磁州窯) 등 유명한 도자기 생산지들은 전체 도자기 시장 내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당시 민남지역의 천주항(泉州港)은 해외수출의 중요한 항구로서 중국내 대부분의 도자기가 이곳을 거쳤다. 이러한 환경은 민남지역에 거대한 도자기 모방 및 재창출을 위한 체계를 형성하게 했으며, 민남지역 도자기만의 특징적인 양식으로 시장 수요에 부응하게 되었다.



Fig. 3. Comparison of Quanzhou and Jingdezhen Ceramics

민남지역의 도자기 발전과정을 보면 동시대 유명 요장의 전성기와 맞물려있다. 민남지역의 덕화(德化)의 완평요(碗坪窯)는 송대 전체에 걸쳐 다른 요장의 영향을 받았다. 월주요(越州窯)의 청자, 경덕진요(景德鎮窯)의 청백자, 자주요(磁州窯)의 청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영향은 민남 도자기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를 완평요의 도자기를 중심으로 융합의 결과를 형태와 장식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완평요는 북송(北宋) 후기 경덕진의 호전요(湖田窯)에서 유행시켰던 '삿갓그릇'을 생산했다[10]. 이는 두 지역 간의 도자기 제조 기술은 밀접한 인연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남송(南宋)중기 용천요(龍泉窯)에서 유행시켰던 '비점획화(莖點劃花: 핀 찍는 방법으로 만든 문양)를 결합시켜 새로운 장식으로 발전시켰다[11]. 경덕진요의 조각기법인 '한 쪽은 깊고 다른 한쪽은 얇게'이라는 '반칼(半刀泥)'의 양식을 사용했다. 샤먼(廈門)의 정계요(汀溪窯) 청자의 유약과 시유방법은 주로 용천요의 '두터운 태 뭍은 유약(厚胎薄釉)' 모방한 것이며, 장식기법, 무늬, 소재 등 많은 부분에서 용천요의 선명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완평요의 전사기법은 경덕진요의 청백자에서 보이는 독특한 기법과 구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마의 소성 방법에 있어서도 민남지역의 도자기는 가마에 '갑발부소(匣鉢覆燒: 사발을 거꾸로 겹쳐서 태우다)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용천요의 가마 소성방법에서 유래했다.



Fig. 4. Longquannyao Ceramics, and Jingdezhen Decoration Techniques(반칼: 半刀泥)

민남지역의 도자기 산업은 생산원가를 낮추고 생산량

을 늘리고자 다른 지역 도자기 산업의 특성을 모방했지만, 모방과정에서 창의적 융합을 시도해 자신들의 체계에 적합한 도자기를 생산해냈다.

### 3.2 다른 문화와 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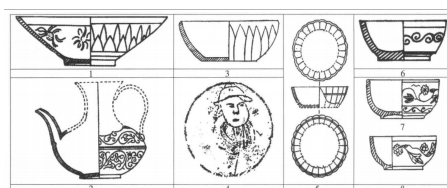
1991년 필리핀 남서부 해역의 팔라완(Palawan) 섬에서 브레이커(Breaker)라는 이름의 송대 침몰한 배의 유적 발견됐다. 그 난파선에서는 많은 수량의 남송 시대 민남지역(복건, 福建, Fujian)의 도자기가 발견되었다. 녹백유(靑白釉), 청유(靑釉), 간유(醬褐釉), 검유(黑釉瓷), 하회(釉下彩)로 색상이 입혀진 잔(盞), 접시(盤), 병(瓶), 향아리(壺), 합(盒) 등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 배는 필리핀에서 발견된 유일한 침몰선이 아니었다. 1990년대 이후 필리핀 군도의 서부와 남부 해안에서 중국의 무역선이 발견되었다. 동시에 태국 차오프라야강(Chao Phraya River), 인도 동남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및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일본과 한국, 더 나아가 북아프리카의 포에스테(Foestate), 동아프리카 해안의 탄자니아 킬와(Tanzania Kilwa) 등지에서도 민남지역(복건, 福建, Fujian)의 도자기의 자취를 찾을 수 있다[12]. 민남지역의 해외 교통로의 개척과 국제 무역의 발전은 친주(泉州), 복건(福建), 저장(浙江), 장시(江西) 등지의 도자기 산업 융성에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

송(宋)대 민남지역 도자기는 경덕진요, 용천요, 월주요 등 보다는 품질의 수준이 낮다. 그러나 민남지역의 도자기가 특별한 관심을 받는 이유는 복건(福建)성의 도자기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전문적으로 해외에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되어왔기 때문이다. 당시의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중국 선박이 도착하며 선박에 실린 도자기, 직물 등을 자신들의 생산물과 교환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교환한 도자기는 자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었다. 큰 접시, 사발, 술해(酒海: 술을 저장하는 용기), 소수(小罍), 병 그리고 물독, 향아리 등이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그들은 큰 접시가 가장 선호했다. 당시 동남아시아 문화에서는 식사를 위한 의자와 탁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간혹 연회식사 때마다 그들은 큰 접시에 밥을 담아 바닥에 놓고 네 명 혹은 여덟 명이 둘러앉아 손으로 밥을 손가락을 활용해 집어 먹었다. 이런 큰 접시는 대부분 그 부족의 족장이 소유하고 있었다. 연회 때마다 사람들은 족장에게 큰 접시를 빌리고 연회가 끝난 후 돌려주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남아에서 발견된 도자기는

덕화현(德化縣) 완평요(碗坪窯)에서 생산된 도자기가 많았다[13]. 대체적으로 접시의 구경은 25-30cm사이고, 큰 접시의 구경은 30cm 이상이었다. 송·원대 동남아 각국에서 발견된 도자기는 중국의 동남쪽 연안 즉 민남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이곳은 해외 판매 도자기 생산의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의미한다. 큰 접시, 큰 그릇뿐만 아니라 민남지역의 도자기의 대부분은 해외의 다양한 수요를 위해 제작되었다. 예를 들면, 덕화현(德化縣) 완평요(碗坪窯)와 굴두궁요(屈門宮窯) 등 민남지역의 요장들은 해외가 요구하는 도자기를 대량으로 생산하였다. 또한, 가격이 높은 고급 도자기의 수출을 위해 포장을 위한 상자를 제작했다. 송(宋)대 수출된 고급 도자기는 크기가 작고, 용도 또한 달랐다. 초기 시장은 주로 동남아시아의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었다. 현지인들은 이 도자기 포장 상자를 본인들의 취향에 맞게 재활용했다. 향료를 넣거나 여성용 화장품을 넣어 사용했다. 남송(南宋)대 중반 이후부터 원(元)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이 도자기 포장 상자의 수요가 늘어났고, 판매 구역 또한 확장되었다. 이에 맞게 민남지역의 도자기 포장 상자는 다양한 디자인(원형, 팔각형, 과릉(瓜棱)형 등)으로 발전되었다. 또한 상자의 장식도 다양하게 발전되었다.

민남지역의 도자기는 동남아시아를 넘어 일본까지 수출되었다. 헤이안(平安)시대부터 가마쿠라(鎌倉)시대까지 경총(經塚:경전을 묻은 무덤)에서 발굴된 도자기를 볼 때, 대량의 덕화현(德化縣) 완평요(碗坪窯) 도자기들이 수입되었다. 일본의 나가사키(長崎), 사가(佐賀), 도쿠시마(德島), 야마구치(山口), 오사카(大阪), 교토(京都), 시즈오카(静岡), 나가노(長野), 가나자와(金澤) 등지의 경총에서 발견된 도자기들로 추정해볼 때 민남지역의 도자기는 일본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었다[14]. 백자주전자, 향로, 작은 명(皿), 사발, 사이호(四耳壺), 매화병(梅花瓶), 수주(水注), 소용돌이무늬병(渦紋瓶), 백자당초문(唐草紋)병, 백자연당초문(蓮唐草紋)병 등이 출토되었다. 이들

Table 2. Pattern Design of Exportable Ceramics in Minnam Province



의 특징은 형태 전반에 걸쳐 청백색(影靑)을 띠고 있다. 이는 송(宋)대 민남지역의 도자기와 유사하다. 또한 일본 중부에서는 덕화현(德化縣) 개덕요(蓋德窯) 계열의 도자기와 유사한 것들이 출토되었다[15].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사용되었던 도자기는 그들의 사회생활과 풍속습관에 기인하였다. 동남아 국가들의 불교, 이슬람교 등 종교 신자들을 위한 특수한 용기가 제작되었다. 민남지역의 덕화현(德化縣) 완평요(碗坪諭窯), 굴두궁요(屈門宮窯) 등에서 제작되던 쿤디카(Kundika)가 바로 그것이다. 송(宋)·원(元)대 자조요, 덕화요는 이러한 특수용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해냈다. 특히, 덕화요에서 생산되는 쿤디카(Kundika)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연판(蓮瓣), 반룡지룡(蟠龍螭龍), 색조(色蕉), 물결과 구름무늬 등이 특징이다. 이것들은 모두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길은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다[16].



Fig. 5. Exportable Kundika for South-East Asia

민남지역의 해외 판매 도자기의 형과 장식, 그리고 표현은 외래문화의 요소와 중국 전통문화가 결합된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경제, 문화, 종교 등이 결합된 문화융합의 상징이었다. 해외 수출을 위해 제작된 민남지역의 도자기는 다른 문화권의 일상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도자기 제조 기술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천만리는 수출하는 도자기의 상당한 양이 국내에서 사용하는 도자기와는 많은 부분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민남지역의 도자기는 서로 다른 두 개 문화의 융합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4. 결론

중국 역사에서 3대 해양무역의 제품인 도자기를 통해 국내를 비롯한 해외와 교역하면서 왕성하게 발전하였다. 민남의 도자기의 발달은 단순히 기술적 측면만이 아니다. 민남의 청자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에는 당시 민남 지역만의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특성들이 조화롭

게 상호작용을 통해 융합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민남 도자기가 중국 도자기 역사상 유일한 융합의 가치를 세운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민남지역 도자기는 특수한 문화적 융합의 형태와 산업 모델을 제시하였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는 도자기 분야에서 새로운 창출을 위한 융합의 적용은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민남지역 도자기 제작에서 발생한 융합현상은 지역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요구에 의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17]. 이질적인 것들이 섞이고,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융합 현상은 민남지역 도자기의 발전에 근거가 되었고, 이는 시대를 대표하는 것 이상의 문화현상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송대 민남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에서 발생한 다양한 융합현상을 민남 도자기의 형태, 장식, 그리고 기능의 특징을 분석을 통해 소개했다. 민남 도자기의 융합현상 연구는 도자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다양한 환경적 영향에 의한 융합현상의 사례를 확인하면서, 융합의 창의적 가능성에 대해 제시하고자 했다.

#### REFERENCES

- [1] M. F. Dupoizat, (1995). The ceramic cargo of a Song Dynasty junk found in the Philippines and its significance in the China-South East Asia trade, *South East Asia & China, Art, Interaction & Commerce, Percival David Foundation of Chinese Art*.
- [2] J. Raby. (1984). *Maturity and decline of Iznik Pottery*, LZNIC, London.
- [3] H. Jung. (2002). *The Influence of Jingdezhen Ceramics of China on the Blue and White wares of Korea: With a Specific Reference to tall Blue and White Pottery*, M.F.A.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4] R. Dunn. (2012). *The Adventures of Ibn Battuta: A Muslim Traveler of the Fourteenth Century, With a New Prefa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5] H. Y. Deng, Y. Fang & G. P. Wang,. (2013). *Song and South Song capital Lin'an series Research Project: History of the Southern Song Dynasty Ceramics*, Shanghai Ancient Books Publishing House.
- [6] H. Cho. (2012). *Economic Crimes of Officials in Song Dynasty and the Prevention and Cure*, China Social Sciences Press.
- [7] S. J. Vainker (1991). *Chinese Pottery and Porcelain. From Prehistory to the Present* Braziller Pub.: First

Edition edition.

- [8] S. Powell. (2012). *A History of Song Dynasty Ceramics*, Troubador Publishing.
- [9] R. Kerr. (2004). *Song Dynasty Ceramics* (Victoria & Albert Museum Far Eastern), Victoria & Albert Museum; 1st edition.
- [10] B. Jeong. (1990). *Dahua Kiln*, Fujian Museum, 1990.
- [11] C. Lim, (1990). *Celadon of Tongan Kiln*, Fujian Museum.
- [12] M. Yang. (2018). *The Circulation of Elite Longquan Celadon Ceramics from China to Japan: An Interdisciplinary and Cross-Cultural Study*, Sussex Academic Press.
- [13] Fujian Museum, (1990). *Dahua Kiln*, Cultural Relics Press.
- [14] H. S. Tang. (1986). *Far Eastern ceramics: China, Japan, Korea, SE Asia : an annotated selected bibliography*, Han-shan Tang; First Thus edition.
- [15] Tokyo National Museum, (2014). *East Asian Elegance: Masterpieces of Ceramics*.
- [16] A. R. Truong. (2018.8.19.). An exquisite and rare carved 'Yaozhou' kundika, Northern Song dynasty", <http://www.alaintruong.com/archives/2016/03/26/33571377.html>.
- [17] J. Park. (2016). Methodological Approach on the Subject of Hybrid-Focus on the Making Process of Ceramic Art, *Research of Art & Design*, 19(3).

임 천(Chun Lim)

[정회원]



- 2011년 6월 : 중국 옥림사범대학교 예술대학 중국회화전공 학사졸업
- 2014년 6월 : 중국 장시성 사범대학교 미술대학 중국회화전공 석사
- 2018년 3월 ~ 현재 : 국립공주대학교 예술대학 조형디자인학부 도

자디자인전공 박사과정 재학중

- 관심분야 : 도자, 공예
- E-Mail : monkeyvicky@sina.com

약 쿤(Yue Kun)

[정회원]



- 2013년 6월 : 중국 호남공정대학교 디자인예술학원 공업제품디자인전공 졸업
- 2016년 6월 : 중국 징더전도자기대학교 디자인예술학원 도자기디자인 이론연구전공

· 2017년 9월 ~ 현재 : 국립공주대학교 예술대학 조형디자인학부 도자디자인전공 박사과정 재학중

- 관심분야 : 디자인, 도자
- E-Mail : 329103784@qq.com

정 정(Zheng Zheng)

[정회원]



- 2013년 6월 : 중국 후난성 상탄대학교 예술디자인 학사졸업
- 2017년 8월 : 공주대학교 예술대학 영상학과 석사졸업
- 2017년 9월 ~ 현재 : 국립공주대학교 예술대학 조형디자인학부 도

자디자인전공 박사과정 재학중

- 관심분야 : 디자인, 도자
- E-Mail : z151203166@gmail.com

박 중 원(Jungwon Park)

[정회원]



- 2000년 2월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공예미술학과 학사
- 2009년 6월 : Cardiff Metropolitan University MA Ceramics 졸업
- 2015년 6월 : University of Sunderland PhD 졸업

· 2016년 3월 ~ 현재 : 국립공주대학교 예술대학 조형디자인학부 강사

- 관심분야 : 도자, 공예
- E-Mail : bricolagecraft9357@gmail.com

김 원 석(Won-Seok Kim)

[정회원]



- 1984년 8월 : 목원대학교 산업미술학과 학사
- 1988년 2월 :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
- 1990년 4월 ~ 현재 : 국립공주대학교 예술대학 조형디자인학부 교수

· 관심분야 : 도자, 공예

- E-Mail : wskim@kongju.ac.kr